

심리유형과 심리특성에 관한 일 연구

- MMPI, 16PF에 나타난 특성을 중심으로 -

박 경 김 명 식

서울여자대학교 광운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상담실

본 연구는 대학생 115명을 대상으로 MBTI에 의한 심리유형과 MMPI, 16PF 척도에 나타난 심리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융의 심리유형과 정신병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입증해보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 먼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개관하였으며, 사용된 자료분석방법은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분산분석(MBTI의 각 지표와 심리유형별로)등이었다. 연구결과 MMPI보다는 16PF상에서 더 뚜렷한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MBTI의 외향성선호(E)는 MMPI의 Pd척도와, 감정형선호(F)는 MMPI의 Hy척도와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외향적 감각형(ES)은 16PF A, E, F, N, EXT, TOU척도에서, 외향적 직관형(EN)은 16PF의 C, F, H, IND척도였고, 외향적 사고형(ET)은 16PF의 A, C, E, F, H, N, Q1, EXT, TOU, IND척도에서, 외향적 감정형(EF)은 16PF의 F, H, EXT척도에서, 내향적 감각형(IS)은 MMPI의 Si, 16PF의 O, ANX척도에서, 내향적 직관형(IN)은 16PF의 I, M, Q2, CRE척도였고, 내향적 사고형(IT)은 MMPI의 Si, 16PF의 G, SUP척도에서, 내향적 감정형(IF)은 MMPI의 F, D, Si, 16PF의 I, ANX척도에서 다른 집단들에서 보다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았다.

연구결과 융의 심리유형과 정신병리와의 관계가 상당히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비교적 적은 수의 정상인 대학생들(n=115)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통계분석시 여러 제한점이 있었으며, 연구결과를 임상집단까지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심리유형론(Psychological Type)은 고대로부터 많은 철학자, 심리학자들에 의해 주목받아온 분야이다.

주지하다시피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성격을 그의 체액에 따라 다혈질(낙천성), 우울질(침울), 담즙질(화를

잘냄, 점액질(게으르고 침착함) 등으로 분리하였고, Krechmer(1925)는 체형과 사람의 성격이 일치한다는 이론하에 쇠약형, 비만형, 투사형, 이상발육형으로 구별하였고, Krechmer의 연구를 더 발전시킨 Sheldon(1940)은 내배엽형, 중배엽형, 외배엽형으로 사람의 체형-성격을 구별하였다.

또한 Jung(1921)은 그의 임상적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외향성(extroversion)-내향성(introversion), 감각(sensation)-직관(intuition), 사고(thinking)-감정(feeling)을 기본으로 하여 8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Eysenck(1986)는 트레이트란 생물학적이고 기질적인 개인차이며 다양한 정신생리적인 과정들이 개인차를 일으킨다고 보면서 성격구조에 대한 세요인 즉 외향성(extroversion), 신경증(neuroticism), 정신증(psychotism) 모델을 제안한 바있다.

보통 유형과 특성은 비슷하게 생각되기 쉽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구별되는 개념이다. 첫째, 유형론은 사람들의 성격을 불연속적 범주로 구별하나, 특성론은 성격을 연속적인 차원상에서 나타낸다. 둘째, 유형론에서는 매우 소수의 개념들을(보통 2~7개) 다루게 되나, 특성론에서는 방법론적 접근에 따라 특성의 숫자가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유형론은 매우 소수의 단순한 변인들에 의해 복잡한 행동을 설명한다는 점이 특성론과 구분된다.

1. Jung의 심리유형론(Theory of Psychological Types)과 정신병리

Jung의 심리유형론은 Jung의 이론가운데 비교적 초기의 이론으로서, 일반적인 태도를 외향적 태도-내향적 태도로 구분하고, 정신기능을 감각·직관, 사고·감정의 기능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극을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Jung(1921)은 정신에너지의 방향(외향성-내향성), 정신기능(감각·직관, 사고·감정)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며 각각의 극에서 우월한 정신에너지의 방향, 정신기

능들에 의해 인간의 의식의 특징지어 지고, 그 대극이 되는 정신기능들은 무의식에 남아 미분화 된다고 보았으며, 그 의식과 분화된 정도에 따라 주기능(dominant function), 보조기능(auxiliary function), 열등기능(inferior function)으로 구분 하였다.

Jung의 심리유형론에서는 4개의 정신기능이 2개의 태도와 조합되어 8가지 심리유형이 설정되는데, 8가지의 심리유형은 외향적 감각형, 외향적 직관형, 내향적 감각형, 내향적 직관형, 외향적 사고형, 외향적 감정형, 내향적 사고형, 내향적 감정형등이다.

Jung은 심리유형론에서 심리유형과 정신병리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8가지 성격유형의 의식의 태도·기능이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사용될 때 무의식의 열등한 기능들이 그에 대한 보상작용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각각의 유형에 특이한 정신병리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각 유형별로 발생하기 쉬운 정신병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향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신경증은 히스테리성 노이로제(Hysteria)라고 말하였다. 자기자신을 흥미있는 일에 몰입시키고, 타인의 영향을 받기 쉽고, 특히 자신을 환상의 영역으로 쉽게 인도하는, 히스테리적 거짓말(hysterical lie)을 한다고 비난받는 감수성(effusiveness)이 이들의 특징이다. 히스테리적 성격은 정상적인 태도의 과장으로서 시작한다. 이것은 무의식의 보상적 기능에 의해 복잡하게 되는데, 무의식은 정신에너지(libido)를 내적으로 돌리게 하는 신체적 증상에 의해 과도한 외향성에 반작용 한다.

내향성에서 생기기 쉬운 전형적인 신경증은 신경쇠약증(Psychathenina)이다. 또한 자아팽창(ego-inflation)과 자아중심성에 빠질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주의의 사물과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 주관적인 견해를 갖게되며, 이런 경향이 종종 내향성의 사람이 객관적인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내향적인 사람이 신경증적이 되면 자아(ego)를 자기(self)과 완벽히 동일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기의 중요성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고, 자아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팽창되고, 주관적인 요인이 자아에 집중되어 한없는 권력·콤플렉스나

어리석은 자아중심성에 빠진다고 하였다. 융은 리비도 이론으로써 우울증을 설명하였는데, 우울은 심리 기제 전체에서 에너지양이 고갈·소실된 것이며, 우울의 역동을 보상과 내향성 개념에서 접근하였다. 즉 우울을 리비도가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이동하여 고갈된 결과, 내부적 경험을 통해 성격의 재정향화(reorientation)를 하려는 마음의 시도로 보았다(Steinberg, 1989).

외향적 감각형의 경우 의식의 일방성으로 말미암아 무의식과의 해리가 심해지면 강박증과 공포증등이 생기기 쉽다. 외부대상에 대해 지나치게 쾌락을 찾고, 속박(bondage)될때 무의식의 보상적 기능이 발동하여 억압된 직관이 투사의 형태로 작용하여 다양한 미신적 경향이 생길 수 있으며 강박증과 공포증이 생긴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신경증적 증상들은 쉽게 살아가는 의식의 태도에 대한 무의식의 반작용인 것이다.

외향적 직관형의 경우 생기기 쉬운 신경증은 강박적인 건강염려적 사고(compulsive hypochondriacal ideas), 공포증, 허위적인 신체감각(absurd bodily sensation)등이 있다.

외향적 감정형의 경우 걸리기 쉬운 신경증은 유아적인 성욕을 무의식속에 갖는 히스테리이다. 외향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어 자아가 외부의 사물에 지나치게 속박될 때, 무의식의 사고기능이 반작용하여 사물들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라는(nothing but)'는 냉소적이고 편견에 치우친 생각을 갖게되어, 그의 지나친 사물에 대해 속박된 감정의 세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외향적 사고형의 경우 그 의식의 태도가 일방적으로 극대화될 때, 부정적 사고경향과 신지학적 사고(theosophical thinking)에 빠지게 된다. 지나치게 외부의 사물에 대한 사고에 집착하게 될 때, 무의식적인 감정의 기능이 작용하기 시작하여 개인적이고 과도한 편견과 부정적인 가정에 이르게 하며, 그의 감정은 보수적, 불신, 인색(petty)하게 된다.

내향적 감각형의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는 신경증은 강박신경증이며, 피로증상뒤에 히스테리성의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내향적 직관형의 사람들에게 흔히 보이는 신경증은 건강염려증상, 감각기관의 과민상태,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강박적인 속박등의 여러 증세이다.

내향적 감정형의 사람들이 흔히 걸리게되는 신경증은 신경쇠약증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 강한 신체변화 즉 빈혈이라든가 이에 따르는 신체증상을 수반한다고 Jung은 말하였다. 내향적 사고형의 성향이 강해지면 사고의 경화와 완고성, 지나친 주관성을 보이기 쉽다.

이부영, 연병길, 유정희, 김중술 및 장환일(1988)등은 한국인에 대한 심리유형 측정 도구의 작성과 정신병리와 심리유형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피검대상 환자수의 부족, 검사지 작성에서의 문제, 심리장애가 뚜렷한 환자들의 주기능과 열등기능의 혼란으로 인한 정확한 심리유형 평가의 어려움등에 의해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많지 않았다.

이재갑(1993)은 Ekstrom(1998)이 주장한 바있는 Jung의 심리유형론과 성격장애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MBTI 검사로 심리유형을 알아 보았고, 성격장애는 MMPI의 성격장애 척도를 사용하였다. Ekstrom은 Jung의 심리유형과 성격장애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외향적 사고형의 경우 정상적인 특징이 원칙주의, 이상주의이며 부적응적인 특성은 교조주의, 외곬수이고 DSM-III의 분열성 성격장애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내향적 사고형의 경우 정상적인 특징이 독립, 완고성이며 부적응적인 특성은 수세주의, 걱정이고 DSM-III의 회피성 성격장애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외향적 감정형의 경우 정상적인 특징이 순응, 실용성이며 부적응적인 특성은 해리, 과잉, 피상성이고 DSM-III의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내향적 감정형의 경우 정상적인 특징이 동정, 조화이며 부적응적인 특성은 의존성, 우울이고 DSM-III의 의존적 성격장애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외향적 감각형의 경우 정상적인 특징이 현실성, 즐거움이며 부적응적인 특성은 쾌락주의, 경직성이고 DSM-III의 수동-공격성 성격장애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내향적 감각형의 경우 정상적인 특징이 절도, 조

용함이며 부적응적인 특성은 방어, 냉담성이고 DSM-III의 강박적 성격장애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외향적 직관형의 경우 정상적인 특징이 모험, 자발성이며 부적응적인 특성은 무책임, 불안정이고 DSM-III의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내향적 직관형의 경우 정상적인 특징이 공상, 예언등이며 부적응적인 특성은 과대망상, 자기몰입이고 DSM-III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이재갑의 연구는 이러한 Ekstrom의 연구결과와 다른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1.혼란형과 심리적 부적응, 2.심리유형과 성격장애를 연구하였다. 여기서 혼란형이란 주기능과 열등기능을 구별할 수 없는 뚜렷하지 않은 심리유형을 말하는데(Myers, 1985), 연구결과 혼란형이 비혼란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불안을 보였으며, 외향적 직관형과 반사회적 장애척도, 외향적 감정형과 수동-공격성 장애척도, 내향적 감정형과 의존적 성격장애척도, 외향성과 히스테리성 장애척도, 내향성과 분열성 성격장애척도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 심리유형과 기타 관련 연구

Millon의 성격유형이론은 최윤경과 안창일(1993)에 의해 성격유형을 평가하는 형용사 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연구에 의해 처음 소개된바 있다. Millon(1981, 1985)의 이론은 성격의 형성과 발달은 생물학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모두 중요하다고 보는 생사회학적 학습(biosocial learning)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적 강화를 얻고 부적 강화는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인의 강화 전략이 성격의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강화를 얻는 근원의 네가지(독립적, 의존적, 양가적, 분리적)와 도구적 행동양식(능동적, 수동적)이 상호 작용하여 8가지 기본 성격유형이 형성된다. 강화를 추구하는 방법 네가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적으로 강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믿는 믿음(self reliance)이 정적인 강화를 얻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학습한다. 의존적으로 강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타인으로 부터의 주의, 애정, 지지가 중요하다.

양가적으로 강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강화를 어디에서 얻을 것인지가 불확실하다. 분리적으로 강화를 추구하는 이들은 현실에서는 자신이나 타인을 통해 강화를 얻는데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되어 강화 자체의 욕구 결여를 나타낸다.

8가지 기본 성격유형은 비사교적, 회피적, 복종적, 사교적, 자기애적, 공격적, 순응적, 부정적 성격이다. 이와같은 정상적인 성격이 병리적으로 확장되면 비사교적인 성격은 정신분열성으로, 회피적인 성격은 회피적인 성격으로, 복종적인 성격은 의존적인 성격으로, 사교적인 성격은 연기성성격으로, 자기애적인 성격은 자기애적 성격으로, 공격적인 성격은 반사회적인 성격으로, 순응적인 성격은 강박적인 성격으로, 부정적인 성격은 수동-공격적인 성격 장애가 된다고 보았다. 정상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최윤경과 안창일(1993)의 연구에서 성격장애와 심리유형간에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최근 성격 요인에 관한 5요인(Big Five)설을 주장하는 Mcrae와 Costa(1993)는 아이젠크, Wiggins의 검사들과 MMPI, MBTI를 포함하는 다양한 검사들을 통합하여 NEO-PI검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가 측정하는 요인은 신경증,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다.

신경증 요인은 개인의 정서적인 안정성, 혹은 적응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불안, 적대감, 우울, 소심증, 충동성, 허약성을 말한다. 외향성 요인은 온정, 사교성, 활동성, 긍정적인 정서를 포함하고 있다.

경험에의 개방성은 풍부한 상상력, 심미적 감수성, 지적인 호기심, 가치의 개방성을 나타낸다. 친화성은 대인관계 차원으로 신뢰성, 솔직성, 이타성, 순응성이 포함되어 있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사회적인 평판이 좋기는 하나 정신건강 면에서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즉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의존적인 성격을 보이는가 하면, 낮은 사람은 나르시즘, 반사회적, 편집증적인 성격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 있

다(Costa & Mcrae, 1992).

성실성 요인은 유능성, 정연함, 의무감, 자기통제, 신중성을 포함한다. 각 5요인과 심리유형과는 어떤 점에서 일치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들어 외향성은 MBTI의 외향성과, 친화성은 감정과, 성실성은 판단과, 경험에의 개방성은 직관과 관련지을 수 있다.

그러나 5요인 구조는 하나의 명명차원이기 때문에 개인의 전체적인 특성 및 유형을 잘 설명해주거나 역동적인 구조가 되지는 못한다(Briggs, 1992). 이전 연구에서도 성격의 개인차를 설명하려면 5요인 구조로는 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16PF 검사로는 더 많은 예언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Mershon과 Gorsuch, 1988).

Myers와 McCaulley(1985)는 22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MBTI의 타당성 연구를 MMPI와 16PF를 통해 한바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MBTI의 E지표가 MMPI의 Ma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 MBTI의 I지표가 MMPI의 K척도와 유의미한 부적상관, MMPI의 D, Mf, Pt, Sc, Si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MBTI의 N지표가 MMPI의 Mf척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 MBTI의 F지표가 MMPI의 Mf척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 MBTI의 P지표가 MMPI의 Pd척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MBTI의 E지표가 16PF의 A, C, E, F, H, EXT 척도들과 유의미한 정적상관, MBTI의 I지표가 16PF의 M, O, Q2, Q4, ANX, IND척도들과 유의미한 정적상관, MBTI의 S지표가 16PF의 G, N, Q3척도들과 유의미한 정적상관, MBTI의 N지표가 16PF의 B, E, F, I, M, Q1, IND, CRE척도들과 유의미한 정적상관, MBTI의 T지표가 16PF의 N, O, Q1척도들과 유의미한 정적상관, MBTI의 F지표가 16PF의 A, F, I, Q4척도들과 유의미한 정적상관, MBTI의 J지표가 16PF의 G, N, Q3척도들과 유의미한 정적상관, MBTI의 P지표가 16PF의 E, F, I, L, L, Q1, Q2, IND, CRE척도들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3.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용의 이론에 기초한 성격 특성과 정신병리와의 관계를 MMPI와 16PF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하며 이를 토대로 MBTI의 임상적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MBTI의 각 지표(E, I, S, N, T, F, J, P)가 MMPI, 16PF의 임상척도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MBTI의 8개의 유형별로 MMPI, 16PF의 임상척도 점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가?

방 법

1. 연구대상

서울시내 2개 대학에서 심리학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 남,여 11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115명 중 남자가 48명, 여자가 67명이었고, 전체의 평균연령은 20.4세, 남자의 평균연령은 20.6세, 여자의 평균연령은 20.6세였다.

2. 연구도구

1)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는 Jung의 심리유형이론을 근거로 Catharine C.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가 개발한 성격검사이다. 원래 Jung의 심리유형이론에서는 판단-인식에 의한 성격유형은 언급되지 않고 외향성-내향성, 감각-직관, 감정-사고의 3가지 지표에 의한 8가지의 성격유형만이 있었는데, MBTI에서는 Jung 이론의 J와 P의 기능을 확장시켜 16가지의 성격유형을 확정 하였다.

MBTI 한국 표준판은 미국 Counseling Psychologist Press의 인준을 얻어 1987년 St. Louis University

에서 김정택, 심혜숙 박사가 번안,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한국판 표준화 작업을 1990년에 완성하여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MBTI는 총 9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향성(Extroversion:E), 내향성(Introversion:I), 감각(Sensation:S), 직관(Intuition:N), 사고 (Thinking:T), 감정(Feeling:F), 판단(Judgement:J), 인식(Perception)의 8 가지 선호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MBTI 검사에는 자가 채점용(MBTI-GS)과 컴퓨터 채점용(MBTI-GA)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가 채점용 MBTI 검사(MBTI-GS)를 사용하였다. MBTI 영어판 검사(FORM G,1975)에서 반분 신뢰도(split-half reliability)가 EI지표는 .63-.99, SN지표는 .75-.90, TF지표는 .67-.86, JP지표는 .80-.88로 검증되었다. 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에서 EI지표는 .83, SN지표는 .78, TF지표는 .82, JP지표는 .82였다.

2) MMPI

김영환, 김재환, 김중술등(1989)이 표준화한 MMPI 표준형을 사용하였다. 3개의 타당도척도와 10개의 임상척도를 사용하였다.

3) 16PF(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

염태호, 김정규(1990)가 표준화한 16PF 척도를 사용하였다. Cattell등이 제작한 16PF는 16개의 일차요인과 이들의 상관에 의한 8개의 2차요인을 제시하였다. 각 요인들의 임상적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요인에는 온정성(A), 지능(B), 자아강도(C), 지배성(E), 정열성(F), 도덕성(G), 대담성(H), 민감성(I),

불신감(L), 사변성(M), 실리성(N), 죄책감(O), 진보성(Q1), 자기충족성(Q2), 통제력(Q3), 불안감(Q4)이 포함되어있다. 2차요인으로는 외향성(EXT), 불안(ANX), 강정성(TOU), 자립성(IND), 초자아(SUP), 창의력(CRE) 등이 있다.

3. 방법 및 절차

먼저 MBTI의 유형을 결정하고 각 지표들의 원점수를 연속점수(표준점수)로 변환시킨후 MMPI, 16PF의 척도들의 점수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PC 3.0을 사용하였다.

첫째, MBTI의 지표의 연속점수(표준점수)들과 MMPI, 16PF의 임상척도 점수들간의 단순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MBTI의 지표의 연속점수(표준점수)들의 변량을 설명하는 MMPI, 16PF의 척도들을 탐색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MBTI의 8가지 유형에 대한 MMPI, 16PF의 척도들의 점수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하였다.

결 과

연구집단 115명의 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연구집단의 MBTI성격유형분포를 살펴보면 ISTJ, ISFP, ESTJ 유형들이 가장 많았고, ENFJ, ENFP, ENTJ 등의 성격유형들이 가장 적었다.

표 1. 연구집단의 MBTI 주요지표별 분포(N=115)

	n	%		n	%		n	%		n	%
E	33	28.7	T	73	63.5	ST	50	43.5	SJ	41	35.7
I	82	71.3	F	42	36.5	SF	25	21.7	SP	34	29.6
S	75	65.2	J	59	51.3	NF	23	20.0	NP	18	15.7
N	40	34.8	P	56	48.7	NT	17	14.8	NJ	22	19.1

표 2. 연구집단의 MBTI 성격유형분포(N=115)

ISTJ n=22 %=19.1 □□□□□□□□□□ □□□□□□□□□□	ISFJ n=4 %=3.5 □□□□	INFJ n=8 %=7.0 □□□□□□□□	INTJ n=8 %=7.0 □□□□□□□□
ISTP n=11 %=9.6 □□□□□□□□□□	ISFP n=12 %=10.4 □□□□□□□□□□	INFP n=8 %=7.0 □□□□□□□□	INTP n=9 %=7.8 □□□□□□□□
ESTP n=5 %=4.3 □□□□	ESFP n=6 %=5.2 □□□□□□	ENFP n=1 %=0.9 □	ENTP n=4 %=3.5 □□□□
ESTJ n=12 %=10.4 □□□□□□□□□□	ESFJ n=3 %=2.6 □□□□	ENFJ n=0 %=0	ENTJ n=2 %=1.7 □□

1. MBTI 각 지표와 16PF, MMPI척도점수와의 상관관계

MBTI지표들과 MMPI, 16PF척도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MBTI척도들의 점수를 표준점수인 연속점수로 변환하였다. 그 변환공식은 $I \cdot N \cdot F \cdot P$ 지표의 경우 표준점수=100+ 각 지표의 환산점수, $E \cdot S \cdot T \cdot J$ 지표의 경우 표준점수=100- 각 지표의 환산점수이다.

그러므로 상관관계 해석에 있어, $I \cdot N \cdot F \cdot P$ 지표와의 상관관계는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는 +, -관계는 -로 해석하면 되지만, $E \cdot S \cdot T \cdot J$ 지표의 경우 그와 반대로 +관계는 -로, -관계는 +로 해석하면 된다.

표 3에서 보듯이 MBTI의 E지표는 MMPI의 척도들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16PF의 I 척도와 부적인 상관이 E, IND 척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MBTI의 I지표는 MMPI의 D, SI, 16PF의 Q2, ANX 척도들과 유의미하게 정적인 상관이, MMPI

의 Mf, Ma, 16PF의 A, C, E, F, H, L, N, EXT, TOU, IND척도들과 유의미하게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MBTI의 S지표는 MMPI의 Hs, Hy, Pa, 16PF의 B, I, M, CRE와 유의미하게 부적인 상관이, 16PF의 TOU 척도와 유의미하게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N지표는 MMPI의 Hy, 16PF의 A척도들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MBTI의 T지표는 MMPI의 척도들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16PF의 I, Q4척도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16PF의 H, L, TOU, IND척도들과 유의미하게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F지표는 MMPI의 Hs, Hy, Mf, 16PF의 Q4, ANX척도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MMPI의 K, 16PF의 C척도들과 유의미하게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MBTI의 J지표는 16PF의 Q1, CRE 척도들과 유의미하게 부적 상관이, MMPI의 Mf, 16PF의 G, N, Q3, SUP척도들과 유의미하게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P지표는 16PF의 G, Q4, SUP척도들과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3. MBTI 지표와 MMPI, 16PF 척도 사이의 상관관계

MMPI, 16PF 척도	E	I	S	N	T	F	J	P
L								
F								
K						-.29*		
Hs			.24**			.30*		
D		.30**						
Hy			.28**	-.31**		.40**		
Pd								
Mf		-.25**				.26*	-.24**	
Pa			.25**					
Pt								
Sc								
Ma		-.34**						
Si		.44**						
A		-.40**		-.33**				
B			.29**					
C		-.19*				-.32*		
E	-.43**	-.38**						
F		-.60**						
G							-.43**	-.32**
H		-.64**			-.22*			
I	.42**		.22*		.28**			
L		-.19*			-.22*			
M			.41**					
N		-.28**					-.32**	
Q1							.38**	
Q2		.22**						
Q3							-.22*	
Q4					.20*	.32*		-.30**
EXT		-.63**						
ANX		.27**				.30*		
TOU		-.23**	-.30**		-.31**			
IND	-.31**	-.48**			-.25**			
SUP							-.38**	-.26*
CRE			.39**				.24**	

*.05, **0

2. MBTI의 각 지표에 대한 MMPI, 16PF 척도점수들의 회귀분석

MBTI의 8가지 지표 E, I, S, N, T, F, J, P에 대한 MMPI, 16PF의 척도들의 설명변량을 알아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중다회귀(multiple regression)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단계적 방식(stepwise method)을 사용하였다.

1) E지표에 대한 회귀분석

E지표를 설명하는 MMPI, 16PF의 척도들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MBTI의 E지표에 대한 설명변량이 16PF의 E척도는 18%, I척도의 설명변량증가분이 22.8%(부적인 상관), MMPI의 Pd척도의 설명변량증가분이 7.7%였다.

2) I지표에 대한 회귀분석

I지표를 설명하는 MMPI, 16PF의 척도들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MBTI의 I지표에 대한 설명변량이 16PF의 H척도는 41.3%(부적인 상관), EXT척도의 설명변량증가분이 15.4%(부적인 상관)였다.

3) S지표에 대한 회귀분석

S지표를 설명하는 MMPI, 16PF의 척도들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MBTI의 S지표에 대한 설명변량이 16PF의 M척도는 16.5%(부적인 상관), MMPI의 Hy척도의 설명변량증가분이 6.9%(부적인 상관), 16PF의 C척도의 설명변량증가분이 5.4%(부적인 상관), MMPI의 D척도의 설명변량증가분이 5.1%였다.

표 4. E지표에 대한 MMPI, 16PF 척도점수의 회귀분석

변 인	R ²	B	SE B	Beta	t	sig P
E	.181	3.58905	.91702	.53192	3.914	.0005
I	.409	-2.67333	.68908	-.52783	-3.880	.0006
Pd	.486	.35366	.16993	.28339	2.081	.0464
(Constant)		-12.42748	11.27470		-1.102	.2794

표 5. I지표에 대한 MMPI, 16PF 척도점수의 회귀분석

변 인	R ²	B	SE B	Beta	t	sig P
H	.413	-3.81921	.70929	-.45388	-5.385	.0000
EXT	.567	-3.92987	.76032	-.43568	-5.169	.0000
(Constant)		58.72411	3.83525		15.312	.0000

표 6. S지표에 대한 MMPI, 16PF 척도점수의 회귀분석

변 인	R ²	B	SE B	Beta	t	sig P
M	.165	-2.06829	.68054	-.31262	-3.039	.0034
Hy	.234	-.56701	.16547	-.43136	-3.427	.0010
C	.288	-2.01217	.72779	-.28305	-2.765	.0074
D	.339	.32436	.14272	.29300	2.273	.0263
(Constant)		55.48967	8.95204		6.199	.0000

4) N지표에 대한 회귀분석

N지표를 설명하는 MMPI, 16PF의 척도들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7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MBTI의 N지표에 대한 설명변량이 16PF의 A척도는 10.7%(부적인 상관)였다.

5) T지표에 대한 회귀분석

T지표를 설명하는 MMPI, 16PF의 척도들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8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MBTI의 T지표에 대한 설명변량이 16PF의 TOU척도는 9.5%, IND척도의 설명변량증가분이 7.9%였다.

6) F지표에 대한 회귀분석

F지표를 설명하는 MMPI, 16PF의 척도들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9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MBTI의 F지표에 대한 설명변량이 MMPI의 Hy

척도는 16.1%, K척도의 설명변량증가분이 12.4%(부적인 상관)였다.

7) J지표에 대한 회귀분석

J지표를 설명하는 MMPI, 16PF의 척도들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10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MBTI의 J지표에 대한 설명변량이 16PF의 G척도에 대한 설명변량이 18.5%, 16PF의 Q1척도의 설명변량증가분이 11.6%(부적인 상관), MMPI의 Mf척도의 설명변량증가분이 11.1%였다.

8) P지표에 대한 회귀분석

P지표를 설명하는 MMPI, 16PF의 척도들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1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MBTI의 P지표에 대한 설명변량이 16PF의 G척도는 10.5%(부적인 상관), Q4척도의 설명변량증가분이 10.6%(부적인 상관)였다.

표 7. N지표에 대한 MMPI, 16PF 척도점수의 회귀분석

변 인	R ²	B	SE B	Beta	t	sig P
A	.107	-1.63910	.77920	-.32683	-2.104	.0423
(Constant)		23.16620	3.78863		6.115	.0000

표 8. T지표에 대한 MMPI, 16PF 척도점수의 회귀분석

변 인	R ²	B	SE B	Beta	t	sig P
TOU	.095	2.66162	.88337	.33332	3.013	.0036
IND	.174	2.26375	.88664	.28245	2.553	.0129
(Constant)		-8.69032	8.00383		-1.086	.2814

표 9. F지표에 대한 MMPI, 16PF 척도점수의 회귀분석

변 인	R ²	B	SE B	Beta	t	sig P
Hy	.161	.51160	.15968	.44969	3.204	.0028
K	.285	-.35048	.13888	-.35419	-2.524	.0160
(Constant)		5.45109	10.36308		.526	.6020

표 10. J지표에 대한 MMPI, 16PF 척도점수의 회귀분석

변 인	R ²	B	SE B	Beta	t	sig P
G	.185	2.83111	.64204	.46746	4.410	.0000
Q1	.301	-2.41564	.73196	-.34265	-3.300	.0017
Mf	.412	.42199	.13077	.34070	3.227	.0021
(Constant)		-1.43156	9.75008		-.14	.8838

표 11. P지표에 대한 MMPI, 16PF 척도점수의 회귀분석

변 인	R ²	B	SE B	Beta	t	sig P
G	.105	-2.94432	1.08612	-.34468	-2.711	.0092
Q4	.211	-2.92777	1.14233	-.32588	-2.563	.0135
(Constant)		50.47081	7.72177		6.536	.0000

3. MBTI의 8가지 유형에 따른 변량분석

조사대상 115명을 MBTI의 8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즉 외향적 감각형(ES-ESTP, ESFP), 외향적 직관형(EN-ENTP, ENFP), 내향적 감각형(IS-ISTJ, ISFJ), 내향적 직관형(IN-INTJ, INFJ), 외향적 사고형(ET-ESTJ, ENTJ), 외향적 감정형(EF-ESFJ, ENFJ), 외향적 사고형(IT-ISTP, INTP), IF(ISFP, INFP), 이 집단들에 대해 MMPI, 16PF의 척도들의 점수를 변량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1) ES, EN, IS, IN 집단

조사대상 115명을 MBTI의 ES(n=26), EN(n=7), IS(n=49), IN(n=33)의 4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 대한 MMPI, 16PF의 척도들의 점수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표 12 참조).

ES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척도는 16PF의 A, E, F, N, EXT, TOU였고, EN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척도는 16PF의 C, F, H, IND였다. IS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

수가 나타나는 척도는 MMPI의 Si, 16PF의 O, ANX였고, IN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척도는 16PF의 I, M, Q2, CRE였다.

2) ET, EF, IT, IF집단

조사대상 115명을 MBTI의 ET(n=23), EF(n=10), IT(n=50), IF(n=32)의 4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 대한 MMPI, 16PF의 척도들의 점수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표 13 참조).

ET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척도는 16PF의 A, C, E, F, H, N, Q1, EXT, TOU, IND였고, EF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척도는 16PF의 F, H, EXT였다. IT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척도는 MMPI의 Si, 16PF의 G, SUP였고, IF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척도는 MMPI의 F, D, Si, 16PF의 I, ANX 척도였다

표 12. MBTI선호도에 따른 MMPI 16PF변량분석

MMPI 16PF척도	각 집단별 평균				F	Scheffe
Si	ES-44.96	EN-38.86	IS-52.84	IN-52.61	8.22**	IS-EN,ES IN-EN, ES
A	ES- 6.77	EN- 5.29	IS- 5.12	IN- 4.27	9.34**	ES-IN ES-IS
C	ES- 6.54	EN- 7.00	IS- 5.16	IN- 5.03	4.44**	n.s
E	ES- 6.54	EN- 6.86	IS- 5.21	IN- 5.38	4.70**	ES-IS
F	ES- 7.50	EN- 7.57	IS- 4.88	IN- 4.36	19.82**	EN-IN,IS ES-IN,IS
H	ES- 7.00	EN- 7.29	IS- 4.51	IN- 4.67	16.38**	EN-IS,IN ES-IS,IN
I	ES- 4.65	EN- 5.71	IS- 5.02	IN- 6.91	8.81**	IN-ES,IS
M	ES- 4.96	EN- 5.71	IS- 4.63	IN- 6.45	6.55**	IN-IS,ES
N	ES- 6.65	EN- 5.57	IS- 5.82	IN- 4.52	6.76**	ES-IN IS-IN
O	ES- 5.12	EN- 3.43	IS- 5.86	IN- 5.73	3.77*	IS-EN IN-EN
Q2	ES- 4.96	EN- 6.57	IS- 5.57	IN- 6.48	3.52*	IN-ES
EXT	ES- 7.17	EN- 6.01	IS- 5.11	IN- 4.32	17.25**	ES-IN,IS
ANX	ES- 4.44	EN- 3.47	IS- 5.76	IN- 5.62	5.84**	IS-EN,ES IN-EN
TOU	ES- 6.39	EN- 5.70	IS- 5.96	IN- 4.3'	8.02**	ES-IN IS-IN
IND	ES- 6.72	EN- 7.43	IS- 5.03	IN- 5.42	9.44**	EN-IS,IN ES-IS,IN
CRE	ES- 5.73	EN- 6.50	IS- 5.82	IN- 7.03	7.64**	IN-ES,IS

* $p < .05$, ** $p < .01$ N.S : Not Significant

표 13. MBTI선호도에 따른 MMPI 16PF변량분석

MMPI 16PF척도	각 집단별 평균				F	Scheffe
F	ET-46.91	EF-50.80	IT-49.40	IF-56.16	2.72*	N.S
D	ET-47.17	EF-45.40	IT-51.24	IF-53.94	2.89*	N.S
SI	ET-42.61	EF-46.10	IT-52.28	IF-53.47	7.78**	IT-ET IT-ET
A	ET- 6.48	EF- 6.40	IT- 4.76	IF- 4.81	6.23**	ET-IT,IF
C	ET- 6.70	EF- 6.50	IT- 5.18	IF- 5.00	4.38**	ET-IF,IT
E	ET- 7.04	EF- 5.60	IT- 5.69	IF- 4.61	9.68**	ET-IF,EF IT-IF
F	ET- 7.52	EF- 7.50	IT- 4.76	IF- 4.53	19.18**	ET-IF,IT EF-IF,IT
G	ET- 5.74	EF- 4.00	IT- 5.92	IF- 4.68	3.77*	n.s
H	ET- 7.13	EF- 6.90	IT- 4.72	IF- 4.34	16.74**	ET-IF,IT EF-IF,IT
I	ET- 4.87	EF- 4.90	IT- 5.36	IF- 6.42	3.31*	n.s
N	ET- 6.35	EF- 6.60	IT- 5.62	IF- 4.778	4.01**	ET-IF
Q1	ET- 6.52	EF- 4.60	IT- 6.18	IF- 5.66	3.28*	ET-EF
EXT	ET- 7.00	EF- 6.75	IT- 4.83	IF- 4.72	13.73**	ET-IF,IT EF-IF,IT
ANX	ET- 4.00	EF- 4.76	IT- 5.56	IF- 5.92	5.96**	IF-ET IT-ET
TOU	ET- 6.29	EF- 6.14	IT- 5.71	IF- 4.71	3.92*	ET-IF
IND	ET- 7.21	EF- 6.09	IT- 5.50	IF- 4.67	12.21**	ET-IF,IT
SUP	ET- 5.34	EF- 3.50	IT- 6.07	IF- 4.87	4.13**	IT-EF

* $p < .05$, ** $p < .01$ N.S : Not Significant

논 의

MBTI 각 지표와 MMPI의 각 척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Myers, McCaulley(1985)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MBTI의 N지표와 F지표와 MMPI의 Mf척도와의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고, MBTI의 P지표와 MMPI의 Pd척도와의 상관도 나타나지 않았다.

MBTI 각 지표와 16PF 척도와의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Cattell(1970)의 결과에 비해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척도들이 적었다. 즉 MBTI의 F척도와 J척도는 Cattell의 연구와 일치했으나, E척도는 16PF의 E와 IND 척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MBTI의 I척도는 Q2와 ANX척도에서만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MBTI의 N, P지표와 16PF척도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척도(A, G, Q4, SUP)만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MBTI의 외향성 지표는 16PF의 외향성 지표인 A, EXT등과의 상관을 보이지 않는 반면, 내향성 지표는 16PF 척도의 외향성 지표들과 역상관을 나타내고 MMPI에서도 D와 Si척도와의 정적인 상관을 보여 Jung의 내향성은 타검사에서도 일관성있게 검증되는 성격 특성임이 입증되었다. 이는 성격유형 형용사 척도의 타당도 연구(최윤경등, 1993) 결과에 나타난 극단적인 내향형을 대표하는 비사교 척도와 MMPI 임상척도 및 16PF 척도와의 상관 연구에서도 일치하고 있다.

MMPI의 임상척도와 16PF 척도중 MBTI의 각 지표를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외향성이 강할수록 지배적이고 충동성이 뚜렷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주었다.

반면에 내향적일수록 외부위협에 민감하고 소심하며 16PF의 외향성과는 의미있게 역상관을 보여 내향성은 MMPI 임상척도 보다는 16PF 척도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감각적인 사람일 수록 16PF상에서 사변성이 의미있게 낮고 자아 강도도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사변성이 낮다는 것은 감각적인 사람

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선호하기 때문에 타당한 결과로 보여지나 낮은 자아 강도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좀더 검토하고 확인해 보아야할 과제로 여겨진다.

직관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온정성과는 의미있게 부적인 상관을 보여 냉정하고 비사교적이고, 비판적인 특성이 강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검토해보면 직관과 사고기능은 직관과 감정기능보다 더 관련되어 있는 성격기능이 아닌가 추측된다.

강한 사고형의 사람일수록 16PF의 강정성 및 자립성이 높아 감정에 초연하고 강인하고 자립적임을 보여주어 예상과 일치하였다. 감정형이 강한 사람들은 히스테리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판단적인 사람일수록 강한 도덕성을 보이며 경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진보성과는 의미있는 역상관을 보인다는 점도 예상했던 바이다. 반면에 인식적일 수록 불안하지 않았고 경직되거나 강한 도덕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8가지 성격 유형에 대한 MMPI, 16PF의 척도들의 점수를 변량 분석한 결과를 보면, 외향적인 감각형은 16PF에서 온정성(A), 정열성(F), 실리성(N), 외향성(EXT), 강정성(TOU) 척도등의 점수가 의미있게 높아, 융의 정신병리의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외향적인 직관형은 16PF의 자아강도(C), 정열성(F), 대담성(H), 자립성(IND) 척도의 점수가 높아 이 유형의 사람들이 외부 압력에 저항적이고 매우 독립적이고 자아강도가 강한 사람들로 나타나 역시 융의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내향적인 감각형은 MMPI의 SI, 16PF의 죄책감(O), 불안(ANX)척도들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 융의 가설이 어느정도 지지되었다. 내향적 직관형은 16PF의 민감성(I), 사변성(M), 자기충족성(Q2), 창조성(CRE) 척도들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 이 유형이 정서적 혼란(M), 정신신체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보여, 역시 융의 가설이 어느정도 지지되었다.

외향적 사고형은 16PF의 온정성(A), 자아강도(C), 지배성(E), 정열성(F), 대담성(H), 실리성(N), 진보성(Q1), 외향성(EXT), 강정성(TOU), 자립성(IND)척도들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이 유형의 성

격이 강한 자아강도를 갖고 대담하고 진보적이며, 감정에 초연하고 지나치게 지성적이며 비판적인 성향으로 호를 가능성을 입증해 주었다. 외향적인 감정형은 16PF의 정열성(F)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 유형의 성격의 사교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충동적인 특성만을 시사해 주었다.

내향적 사고형은 MMPI의 Si, 16PF의 도덕성(G)과 초자아(SUP)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이 유형의 사람들이 과도하게 자기능만을 쓸 때 사고의 경직성, 지나친 자기통제등을 병리적으로 나타낸다는 용의 입장과 상당히 일치하였다. 내향적 감정형은 MMPI의 F, D, Si, 16PF의 민감성(I), 불안(ANX), 초자아(SUP)척도들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정신신체장애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용의 이론과 상당히 일치하였다.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자들은 개인차를 설명하는데 있어 최근에 언급된 바있는 Big Five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격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Mershon과 Gorsuch(1988)은 16PF에 의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임상적 적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용의 성격유형에 따른 병리적인 특성들이 16PF같은 성격요인 검사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과연 용의 성격유형과 정신병리와의 관계의 이론이 어느정도 타당성있게 입증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동시에 임상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MMPI척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용의 성격유형에 따른 정신병리의 많은 부분이 지지된 것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정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MBTI 유형에 따른 심리 특성 및 정신병리를 MMPI와 16PF상에서 살펴 보는데 그쳤으므로 연구결과를 임상집단까지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연구집단이 적어(N=115)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각 유형별로 인원수가 부족하여 16가지 유형에 대한 MMPI, 16PF척도들의 점수의 변량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으며, 연구된 8가지 성격유형에 있어서도 각 성격유형을 선호성에 의해 분류하지 않은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결과의 타당도가 제한되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선호성에 따른 차이의 검증이 요구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MBTI가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인데, 환자들의 정신병리를 진단하고 이해하는 진단 및 평가과정에서 MMPI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 MBTI와 MMPI를 함께 사용하게 될 때 정신의학적인 진단을 예견하는데 있어 정확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Linton, Kuechenmeister, & Kuechenmeister, 1982,1986)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MBTI의 임상적인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환자집단의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앞으로는 이 방면에서 MBTI검사가 가능한 임상집단의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MBTI 검사에 의해 결정되는 성격 유형도 선호도 점수가 높은 사람인지 낮은 수준의 사람인지에 따라 개인적인 특성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선호도 점수가 높다는 것은 좀더 뚜렷한 성격 선호를 보이는 반면에, 낮은 선호를 보이는 경우는 각 유형에 따른 성격 특성이 전형적이거나 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표들의 점수를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로 분류하였을 때 MMPI와 16PF 척도 상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준점(cut off)을 어디에 두어야 하며, 기준점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연구가 아직 명확히 이루어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수가 적어 각 지표에서 20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는 피험자와 그 이하의 점수를 보이는 피험자의 특성을 검토해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해 보기는 하였으나, 기준점의 문제 때문에 예비 검사에 그쳤으며 본 연구결과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참고 문헌

- 김영환, 김재환, 김중술, 노명래, 신동균, 염태호, 오상우(1989). *다면적 인성검사 실시요강*. 서울:한국가이던스.
- 김정택, 심혜숙(1990). *MBTI 16가지 성격유형(성격 선호도 검사)*. 서울: 한국심리검사 연구소.
- 염태호, 김정규(1990). *성격요인검사 실시요강과 해석 방법*. 서울: 한국심리적성연구소.
- 이경임(1994). 성격에 있어서 Big Five 구조의 발달.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 29, 39-68.
- 이부영, 연병길, 유정희, 김중술, 장환일(1988). 정신병리와 심리학적 유형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심성연구*, 3, 63-101.
- 이부영(1978).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 이재갑(1993). *심리유형과 심리장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경, 안창일(1993). 성격유형 형용사 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2), 161-178.
- Phares, E.J.(1984). *홍숙기역(1992). 성격심리학(Introduction to Personality)*. 서울: 박영사.
- Briggs, S.R.(1992). Assessing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Description. *Journal of Personality*, 60(2), 54-239.
- Cattell, R.B., Eber, H.W., & Tatsuoka, M.M.(1970). *Handbook for the Sixteen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 Champaign, IL: Institute for Personality and Ability Testing.
- Costa, P.T. Jr., & McCrae, R.P.(1992). Normal personality assessment in clinical practice: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4(1), 5-13.
- Eysenck, H.J.(1986). *Models and Paradigms in Personality Research*. In A. Angleitner, A. Fumham, & G. Aan Heck(Ed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Vol2, 213-223) Current trend and controversies. Lise, Nerlands: Swets & Zeitlinger.
- Ekstrom, S.R.(1988). Jung's Typology and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A Comparison of Classification.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33, 329-344.
- Jung, C.G.(1921). *Psychological Types*(The Collected Works of C.G. Jung-6, Translated by R.F.C. Hull (1971)).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retschmer, E.(1925). *Physique and character*. New York: Harcourt, Brace.
- Linton, P.H., Kuechenmeister, C.A., Kuenchenmeister, S.B., & White, H.(1982). Personality Type and Symptom Formation. *Research Communication in Psychology Psychiatry and Behavior*, 7(4), 463-476.
- Linton, P.H., Kuechenmeister, C.A., & Kuechenmeister, S.B.(1986). Personality Type and Psychiatric Symptom Formation. *Research Communication in Psychology Psychiatry and Behavior*, 11(1), 37-49.
- McCrae, R.P., Costa, P.T. & Piedmont, R.L.(1993). Folk Concept, Natural Language, and Psychological Constructs: Th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and the Five-Factor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61(1), 1-25.
- Mershon, B. & Gorsuch, R.L.(1988). Number of Factors in the Personality Sphere: Dose Increase In the Factors Increase Predictability of Real-Life Criteri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5), 675-688.
- Millon, T.(1981). *Disorder of personality*. New York: Wiley.
- Millon, T., & Everly, G.S. Jr.(1985). *Personality and its disorders: a biosocial learning approach*. New York: John Wily & Sons.
- Myers, I.B., & McCaulley M.H.(1985).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Ross, C.F.G.(1992). The Intuitive Function and Religious Orientation,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37, 83-103.

Sheldon, W.H.(1940). *The varieties of human phy-*

sique. New York :Harper & Bros.

Steinberg, W.(1989). Depression : A discussion of Jung's ideas.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34, 339-352.

One Study of Psychological Types and Psychological Dysfunction in the Scales of MMPI and 16PF

Kyung Park

Myung Sig Kim

Seoul Women's University

Kwang-woon University

This study intended to testify Jung's theory of the relation of psychological types and psychological pathology, by studying the relation of psychological types of MBTI and scales of MMPI, 16PF in 115 university students. Above all, it examined the former articles on the related subjects, and the used statistical methods were simple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ova. The scores of scales of 16PF were mo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scores of preferences of MBTI than the scales of MMPI. The scores of E preference of MBTI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related to Pd scale of MMPI, and the scores of F preference were to Hy. The scores of Extroverted Sensing Type(ES) were significantly more high in A, E, F, N, EXT, TOU scales of 16PF than other groups. Extroverted Intuition Type(EN) in C, F, H, IND of 16PF, Extroverted Thinking Type(ET) A, C, E, F, H, N, Q1, EXT, TOU, IND in 16PF, Extroverted Feeling Type(EF) in F, H, EXT of 16PF, Introverted Sensing Type(IS) Si of MMPI, O, ANX of 16PF, Introverted Intuition Type(IN) I, M, Q2, CRE of 16PF, Introverted Thinking Type(IT) Si of MMPI, G, SUP of 16PF, Introverted Feeling Type(IF) F, D, Si of MMPI, I, ANX of 16PF. So Jung's theories of psychological types and the pathology were somewhat supported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the number of subjects(n=115) so few for statistical process, and general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patients because the most subjects were normal university students.